

기아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부부 강의 · 2026. 10. 18

# 기아차 임직원 실전 은퇴준비

5가지 사례에서 배우는 은퇴준비 ABC

오프닝

# 2012년,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셨습니까?

이제, 또 한 번의 선택이 옵니다

DB · DC · 혼합형 — 한 번 고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

# 투자시장과 종목소개가 아닌, 노후소득을 점검하고 인출을 사전에 계획하는 시간

## 시장

25년 말, 26년 상반기 그리고 지금  
예측하지 못하는 영역

## 제도

3층 연금제도, 연금소득세, 건강보험료  
예측과 계획으로 방어가 가능한 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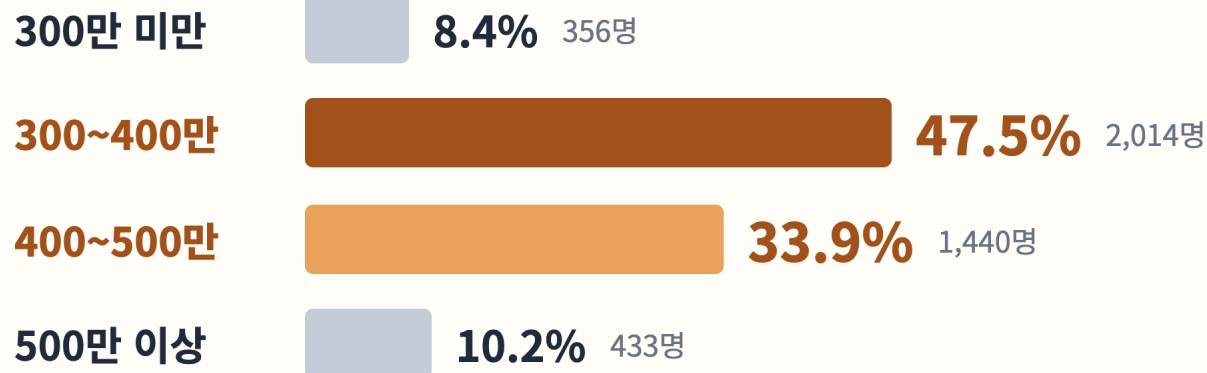
## 부부가 각자 O · X를 적어 보십시오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① 사적연금이 연 1,500만원을 넘으면, 넘는 부분만 세금을 더 낸다  | O · X |
| ② 같은 ETF라면 어느 계좌에 담아도 세금은 같다             | O · X |
| ③ 배우자 공제(6억) 안에서 주식을 옮겼다면, 세금 문제는 끝난 것이다 | O · X |

오프닝 · 동료들이 기대하는 은퇴 생활비는?

## 기아 조합원의 44%, 기대 은퇴생활비 400만원 이상

은퇴 후 부부가 한 달에 쓸 것으로 기대하는 생활비



400~500만 이상 = 44.1% · 응답 4,243명

오늘의 과제

준비된 연금이  
기대 생활비를 얼마나 채우는지  
확인하고, 지키는 것

## 은퇴생활비는 3층 연금으로 완벽 준비

### 3층 사적연금

세제적격 — 연금저축 · IRP (넣을 때 세액공제, 꺼낼 때 소득세)  
세제비적격 — 비과세 연금보험 (공제 없음, 요건 충족 시 비과세)

### 2층 퇴직연금

DB

혼합형

DC

### 1층 국민연금

추후납부 - 납부예외 공백기간 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 늘리기  
조기연금 - 최대 5년 앞당김, 1년에 6% 감액  
연기연금 - 최대 5년 늦춤, 1년에 7.2% 가산

### 꺼낼 때의 규칙 4가지

#### ① 계좌별 인출한도

한 해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금액

#### ② 소득세법상 인출 순서

미공제 원금 → 퇴직금 원금 → 공제분 · 수익

#### ③ 사적연금의 정의와 대상

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

#### ④ 사적연금 연 1,500만 문턱

넘으면 전액이 대상

# DB · 혼합형 · DC - 내게 맞는 선택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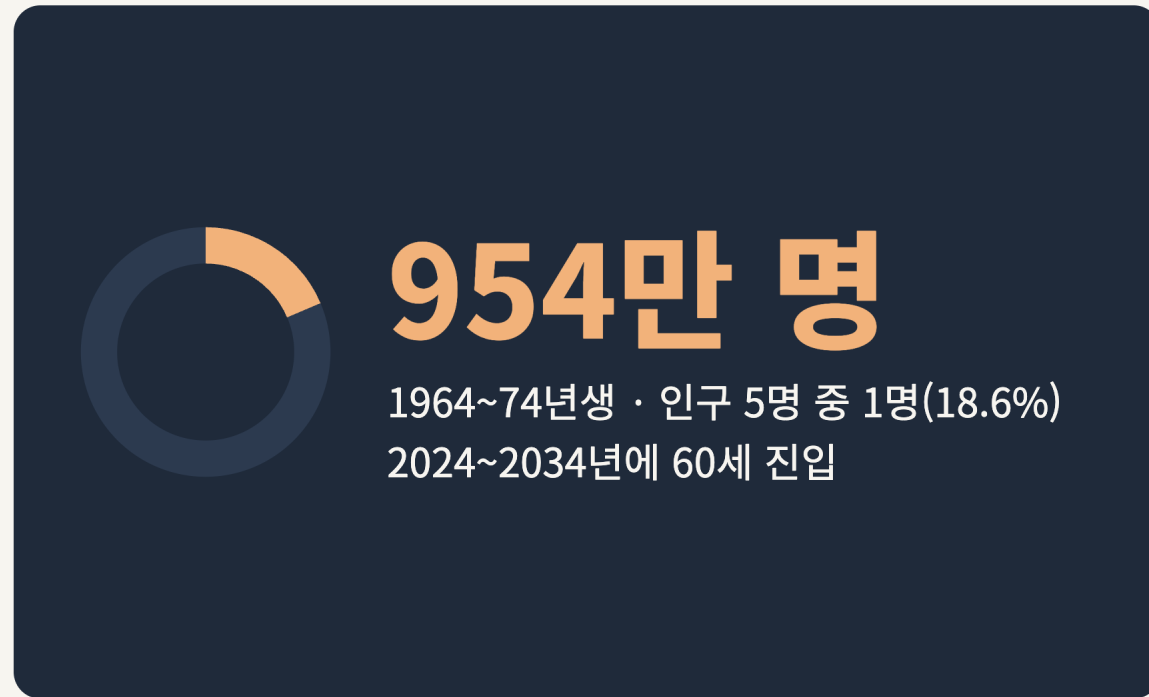
월 평균임금 400만(20년 전) → 880만('2025) 평균임금은 해마다 약 4%씩 상승

| 구분          | DB               | 혼합형                 | DC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퇴직금 산정      | 평균임금 × 근속연수(누진)  | 99% DB 방식, 1% DC 방식 | 회사 부담금 + 운용 결과   |
| 임금인상 반영     | 100% 반영          | DB 부분 100% 반영       | 신규 부담금에 반영       |
| 원금 손실 위험    | 없음               | 퇴직금 1% + 적립한 성과금    | 본인 부담            |
| 경영성과금 DC 적립 | 불가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|
| DB 복귀       | -                | 불가                  | 불가               |
| 고려해 볼 상황    | 임금상승 여력, 정년까지 근무 | DB +성과금(일부)만 노후자금으로 | 직접운용 의사, 임금피크제 등 |

한 번 옮기면 DB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. **남이 아니라 우리 집 은퇴 계획에 맞게** 고르십시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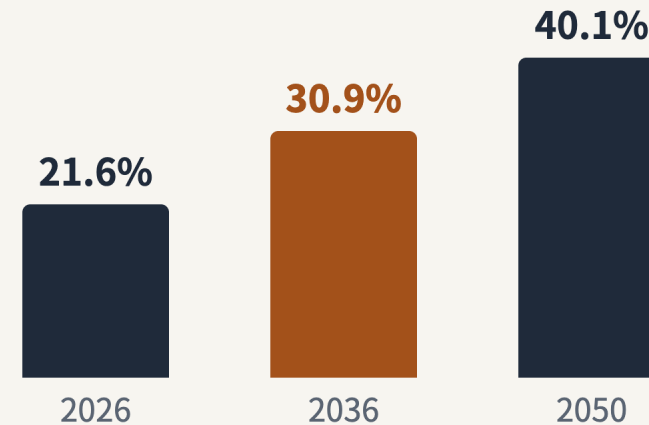
오프닝 · 10년 뒤 한국

# 우리가 은퇴생활을 할 때의 대한민국은?



**10년 뒤,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**

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



노후준비는 연금을 수령하는 전 기간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

## 모으는 단계에서 인출을 생각하는 단계로

1 둘이 살 때도, 혼자 남아도 충분할까요?

연금수령

2 퇴직 후 첫 소득은 어디서 나올까요?

인출순서

3 우리 노후와 자녀 지원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?

자녀지원

4 세금 떼고 건보료 내면 실제 얼마가 남을까요?

건강보험료

5 퇴직 직전에 꼭 줄여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?

위험회피

### 은퇴소득을 감아 먹는 5가지 요소

 인플레이션

 세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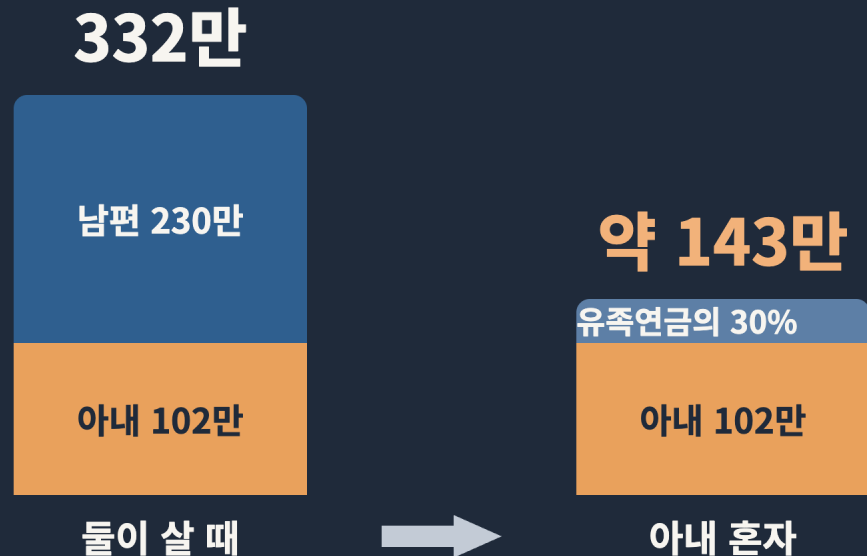
 건강보험료

 환율

 병원비

명제 1 · 여러분이라면?

# 남편이 먼저 떠나면, 아내의 국민연금은 얼마일까요?



유족연금은 두 연금이 합쳐지는 구조가 아닙니다

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

① 유족연금만 - 약 138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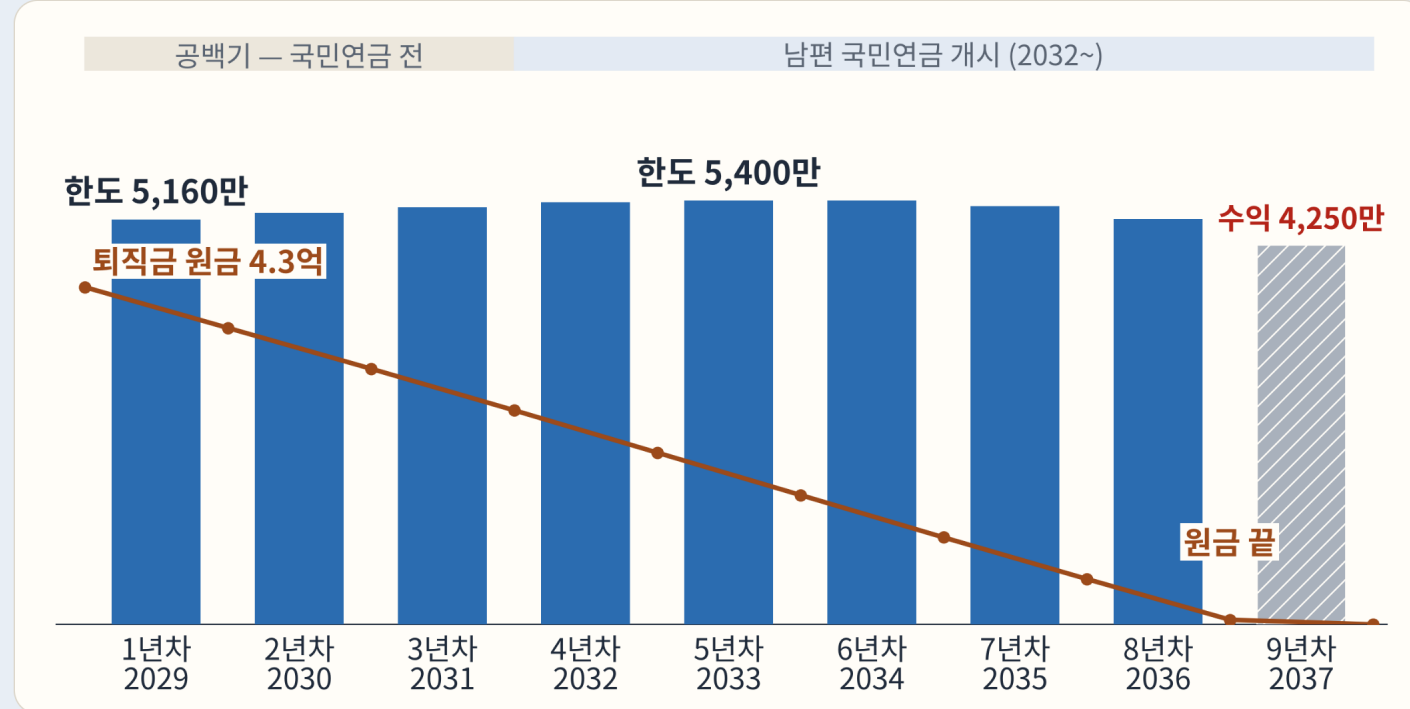
② 아내 연금 102만 + 유족연금의 30% 약 41만 = **약 143만**

이 예시 가정에서는 ②가 월 5.4만원 유리합니다

유족연금 법정 산식 = 기본연금액 × 지급률(가입 20년 이상 60%) + 부양가족연금액 - 실제 노령연금 수령액의 단순 60%와 다를 수 있음

## 명제 1 · 한 가지 설계 예시

# 아내 몫의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으로 단독 생활비 재원을 마련



### 계좌별 연간 인출한도?

인출한도 = 연초 평가액 ÷ (11-연금수령 연차) × 120% · 초과시 연금외수령 · 11년차부터 한도 없음

- 1 한도 안에서 인출**  
퇴직금 4.3억을 IRP로 받아 계좌별 한도 범위내 인출
- 2 퇴직소득세 30% 감면**  
퇴직금 원금은 연금수령으로 퇴직소득세 30% 감면
- 3 해마다 900만은 아내에게**  
아내 연금저축에 증여 ; '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'
- 4 아내 계좌는 미리 개설**  
아내 명의 연금저축 계좌 · 연금수령 가입 5년 뒤 조건
- 5 아내 연금저축계좌로 후반기 대비**  
은퇴 후반기 아내 단독 연금재원으로 투자

## 명제 1 · 제도

# 같은 계좌라도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

IRP 안의 돈은 세 칸으로 나뉘고, ① → ② → ③ 순서로 인출

### ① 먼저 빠짐

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

**세금 없음**

공제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 · 1,500만 판정에도 안 들어감



### ② 다음

퇴직금 원금

**퇴직소득세 30% ↓**

연금으로 받을 때 · 11년째부터 40% ↓, 21년째부터 50% ↓ · 1,500만 판정에 안 들어감



### ③ 마지막

공제받은 납입금 + 수익

**연금소득세 3.3~5.5%**

나이별 · 연 1,500만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.5%

## 인출 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

☐ 칸별 잔액 (①·②·③)

☐ 올해 연금수령한도 · 몇 년차

☐ 올해 ③ 인출액이 1,500만 이하인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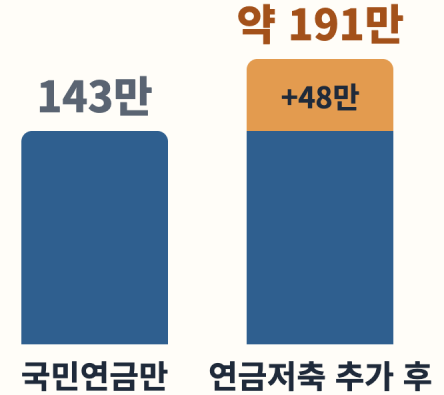
## 순서는 금융기관이 지키고, 금액은 우리가 정합니다

### 금융기관이 해 주는 것

- 법정 순서대로 차감
- 세금 계산·원천징수
- 연금수령한도 계산(막아 주지는 않음)
- 정한 대로 정기 지급(기간·금액)

### 우리 집이 정할 것

- 어느 계좌로 받을지 — 연금수령연차 확인
- 해마다 얼마씩, 몇 년 — 한도 안
- 원금이 끝난 뒤의 속도 — 연 1,500만



둘 다 오늘 가치 · 세전

+48만 = 80세부터 20년 · 연900만원 x 8년적립 · 연 5%

###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다섯 가지

- ① IRP로 받아 연금 수령 — 30% ↓
- ② 한도 안에서 꺼내기
- ③ 오래 받을수록 40·50% ↓
- ④ 수익 구간은 연 1,500만 이하
- ⑤ 부부 이름으로 나눠 문턱 2개

① 연금수령

② 인출순서

③ 자녀지원

④ 건강보험료

⑤ 위험회피

## 명제 1

# 둘이 살 때도, 혼자 남아도 충분할까요?

퇴직금은 언제 · 얼마씩 ·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까지가 '연금수령'입니다

우리 집 점검 — 워크시트 2번 칸

퇴직금 받을 계좌의 연금수령연차: 확인함 / 모름 → 모르면 "퇴직 전 금융기관 확인"

배우자 이름의 연금계좌: 있음 / 없음 → 없으면 퇴직 전 개설(가입 5년 요건)

혼자 남을 때: 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배우자가 승계 신청 ;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제도(수령연차 승계, 자산유지)

명제 2 · 여러분이라면?

# 1,500만을 넘으면, 넘은 만큼만 세금이 늘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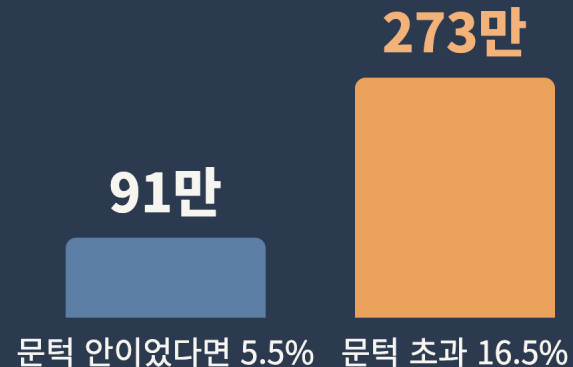
O/X 카드

정답

X

넘으면 전액이 대상

예시 가정: 연 1,654만을 꺼낼 때



한 해 +182만

30년 내내 넘으면 명목 합계 약 9,000만 [추정]  
종합과세가 더 낮으면 그쪽을 고를 수 있음

명제 2 · 제도 1 사적연금 1,500만 문턱

# 1,500만에 들어가는 돈, 빠지는 돈

| 들어감 — 연금저축 · IRP에서        | 빠짐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             |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- 따로 과세   |
| 모든 운용수익 - 퇴직금에서 생긴 수익도 포함 | 퇴직금 원금 -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제비적격 사적연금 - 비과세 연금보험 |

**사람별**, 한 해 동안 모든 계좌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

그래서 생활비는 문턱과 상관없는 돈(국민연금 · 퇴직금 원금)부터 쓰고, 연금저축 · IRP는 한 해 1,500만 안에서만 꺼냅니다

# 11년 만에 올렸지만, 물가만 따라잡았습니다

## ①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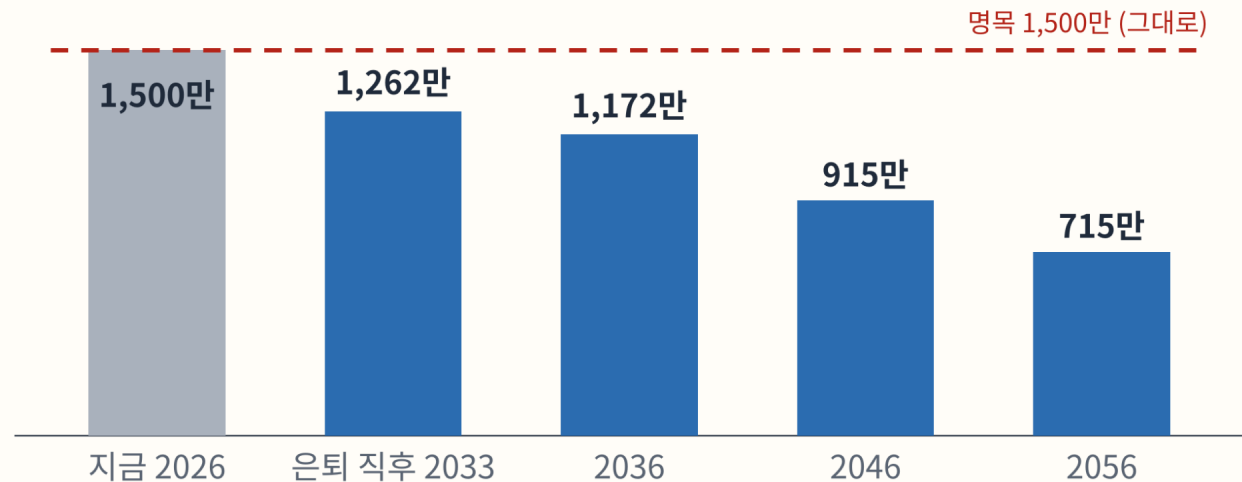
## ② 65세 이상 인구 비중



## ③ 2050년 정부 살림 (전망)



## ④ 1,500만의 실질 가치 — 오늘 돈으로 환산



사적연금 연간 1,500만원 한도가 크게 오를 거라 예상하기보다, **더디게 오른다고 보고 설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**

명제 2 · 준비가 클수록 1,500만은 한 번 넘으면 계속 넘는다

## 한 번 넘은 문턱은 30년 내내 넘는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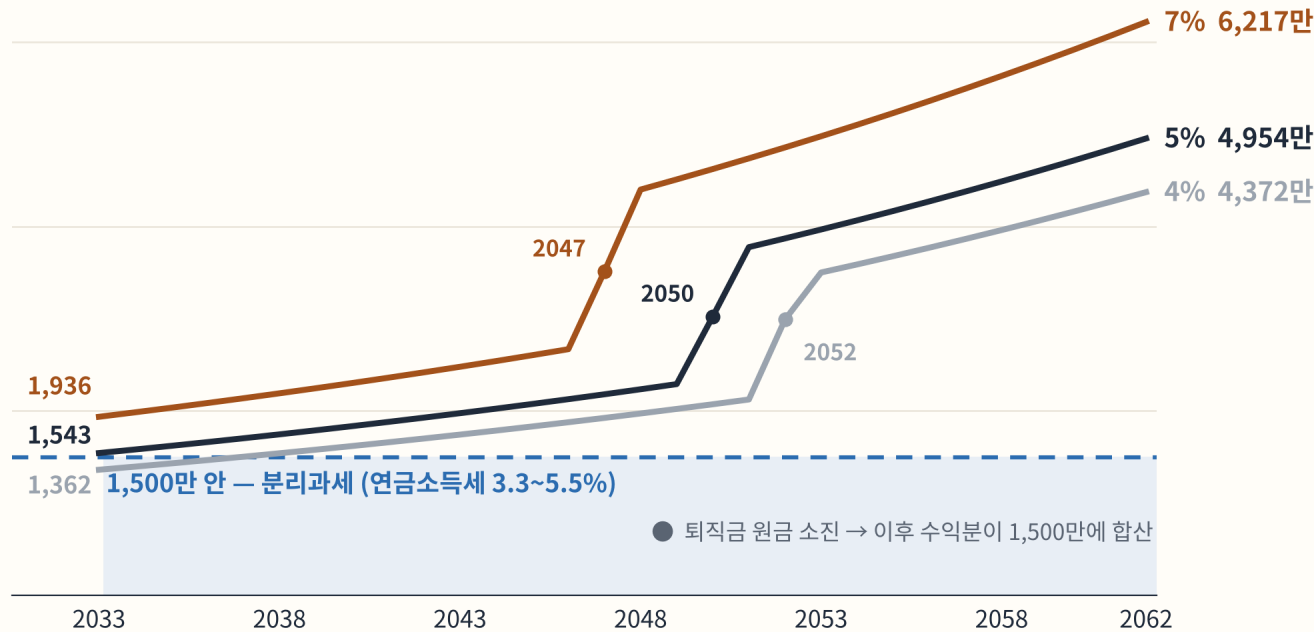
연금 자원  
(개시 시점 미래가치)

연금저축 1.68억  
인출 2033~2062 · 30년

IRP 1.65억  
인출 2033~2062 · 30년

퇴직연금 IRP 1.90억 · 원금  
인출 2033~2062 · 30년 · 원금 먼저, 수익분은 나중에

남편 · 1,500만 판정 대상 연간 인출액(명목) — 인출기간 수익률별



### ① 넣을 때 - 공제 한도, 무조건은 아니다

세액공제 한도 채우기는 우리 집 준비 규모에 따라 다르다

예시 가정: 남은 6년 연 900만을 다 넣으면 개시 때 연금계좌 3.34억

### ② 꺼낼 때 - 한도 안에선 다 못 찾는다

문턱 아래 연 1,450만 고정으로 꺼내도 재원이 남는다  
5% 기준 30년 뒤(2062) 약 4.3억 남음 · 4%여도 약 2.4억

### ③ 대안 - 문턱에 안 잡히는 연금

남은 6년, 연 900만 중 일부 세제비적격 비과세 연금으로  
비과세 연금 → 월 60만원(명목) 준비

준비가 클수록 넣기 전에 꺼낼 때를 먼저 계산 — 공제 한도는 우리 집 규모에 맞게, 넘칠 뚝은 문턱 밖 대안으로

# 퇴직 후 첫 소득은 어디서 나올까요?

→ 언제 · 얼마 동안 꺼내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

1,500만은 사람별, 그리고 물가를 따라 오르지 않는 문턱 - 부부가 나눠 꺼냅니다

우리 집 점검 — 핸드아웃 점검 2 · 인출순서

연금저축 · IRP의 현재 평가잔액을 알고 있다 \_\_\_\_\_만

☐ 예 ☐ 아니오

퇴직 전까지 연금저축 · IRP 목표금액을 정했다 \_\_\_\_\_만

☐ 예 ☐ 아니오

국민연금 수령 전(공백기)에 쓸 인출계좌를 정했다

☐ 예 ☐ 아니오

명제 3 · 여러분이라면?

# 연금은 한 사람 계좌에 몰아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

O/X 카드

정답

X

문턱은 사람마다 하나  
나누면 둘

한 사람 계좌 - 문턱 1개

**전액이 과세 대상**

1,500만을 넘는 해엔 과세 대상 사적연금 전액에 종합  
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

부부 계좌 - 문턱 2개

vs **3.3~5.5%**

각자 1,500만 안에서 꺼내면 나이별 연금소득세

명제 3 · 제도 — 1,500만 관리 심화 예시 가정 2에 이어서

## 1,500만을 다루는 손잡이 세 개

①

### 공제 받을 돈, 안 받을 돈

한 해 900만까지는 공제, 그 이상 넣은 원금은 공제 없음 = 꺼낼 때 비과세 · 판정 제외

②

### 누구 이름으로 쌓을까

문턱은 사람마다 1,500만. 소득이 적은 배우자, 공제 실익이 작지만 꺼낼 때 원금은 비과세

③

### 계좌마다 개시 시점 나누기

연금저축 · IRP의 연금 개시 연도를 다르게 → 한 해에 몰리지 않게하여 한도 범위내 인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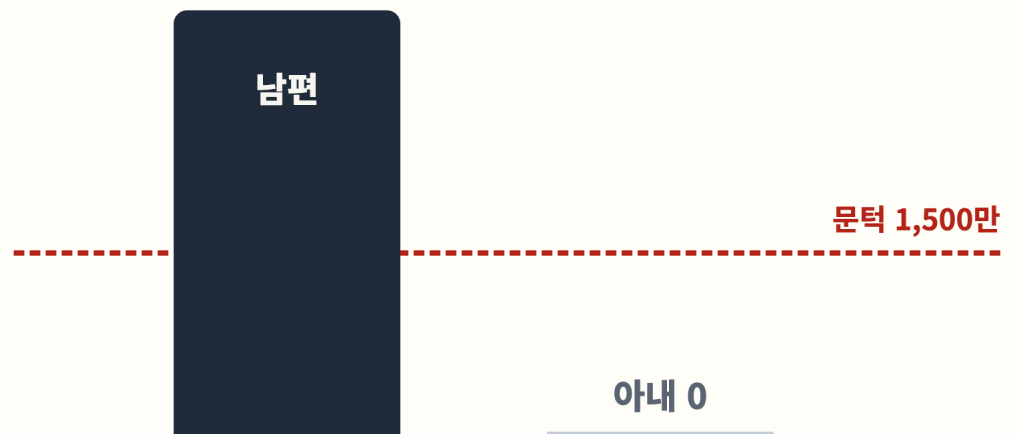
기준은 하나 — 꺼낼 때, 누구 이름으로, 문턱 안인가

명제 3 · 예시 가정의 해법 같은 돈을, 누구 이름으로

## 남은 18년, 앞으로 넣을 돈은 부부에게 나눕니다

### 남편에게 집중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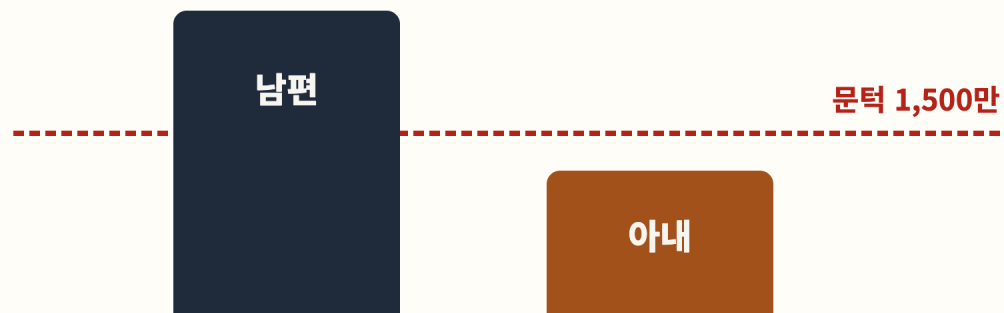
앞으로 넣을 돈까지 전부 남편 명의로 쌓은 경우



문턱은 하나 - 1,500만을 넘는 사적연금 **전액** 종합과세 or 16.5% 선택

### 부부에게 나눈 경우

배우자 과세 대상 인출액을 문턱 안으로 설계한 예시



문턱이 둘 - 아내 문턱 안으로 설계 **3.3~5.5%**, 남편은 넘는 쪽 축소

같은 돈 · 같은 기간이라도 **누구 이름으로 쌓았느냐가 꺼낼 때의 세금**을 바꿉니다 — 아내 몫은 아내 소득에서

명제 3 · 자녀 유기정기금 — 10년만, 정해진 금액을 매달

# 자녀 셋, 계좌도 셋 - 한 번에 말고 매달 나눠서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첫째 · 고교 (17세) | 월 18.9만 × 10년 · 원금 2,268만 · 평가 1,993만 | 추가 납입 없이 운용 → 55세(2064) 약 1.67억 |      |          |
| 둘째 · 중학 (14세) | 월 18.9만 × 10년 · 원금 2,268만 · 평가 1,993만 | 추가 납입 없이 운용 → 55세(2067) 약 1.99억 |      |          |
| 셋째 · 초등 (10세) | 월 18.9만 × 10년 · 원금 2,268만 · 평가 1,993만 | 추가 납입 없이 운용 → 55세(2071) 약 2.51억 |      |          |
| 2026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36 | → 자녀 55세 |

왜 매달인가 — 2,268만을 줘도 연 3%로 할인  
한 평가액은 약 1,993만 → **미성년 공제 2,000만**  
안 · 다음 기회: 성년(19세) 3,000만 · 혼인 · 출산  
1억

**10년만 넣어도** (연 6%) 납입 끝(2035) 1인당 약  
**3,100만** → 인출 가능한 55세에는 **1.7~2.5억** ·  
어릴수록 큼

**지킬 것** 첫 입금 때 증여계약 + 신고 · 정한 날짜  
에 계속 입금 · 자녀 연금저축이면 원금 비과세 ·  
수익 과세이연 - 증권사의 '적립식 증여 서비스'

[가정] 2026년부터 매월 초 18.9만 × 120회 · 연 6%(세전) · 2036년부터 추가 납입 없음 · 평가 할인율 연 3%(상증법 시행령 제62조) · 55세 평가액은 세전 · 명목 · 특정 상품 권유 아님

① 연금수령

② 인출순서

③ 자녀지원

④ 건강보험료

⑤ 위험회피

### 명제 3

# 우리 노후와 자녀 지원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?

→ 가족 명의로 나눠 쌓습니다

앞으로 넣을 돈 일부는 배우자 이름으로 · 자녀는 매달 나눠서 - 부부 노후생활비를 먼저 지킨 뒤

우리 집 점검 — 핸드아웃 점검 3 · 자녀지원

앞으로 넣을 돈을 배우자 명의 연금자산에 적절히 나누고 있다

☐ 예 ☐ 아니오

자녀 증여계획이 있고, 증여 공제 범위 안에서 방안을 세웠다

☐ 예 ☐ 아니오

명제 4 · 여러분이라면?

# 올해부터 배당 분리과세가 생겼으니, 은퇴 후 건보료도 줄어든다

O/X 카드

정답

X

세금과 건보료는 따로 셉니다

세금 - 2026년 1월 지급분부터

**14~20%**

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
→ 세금은 내려감

건보료 - 은퇴 후 지역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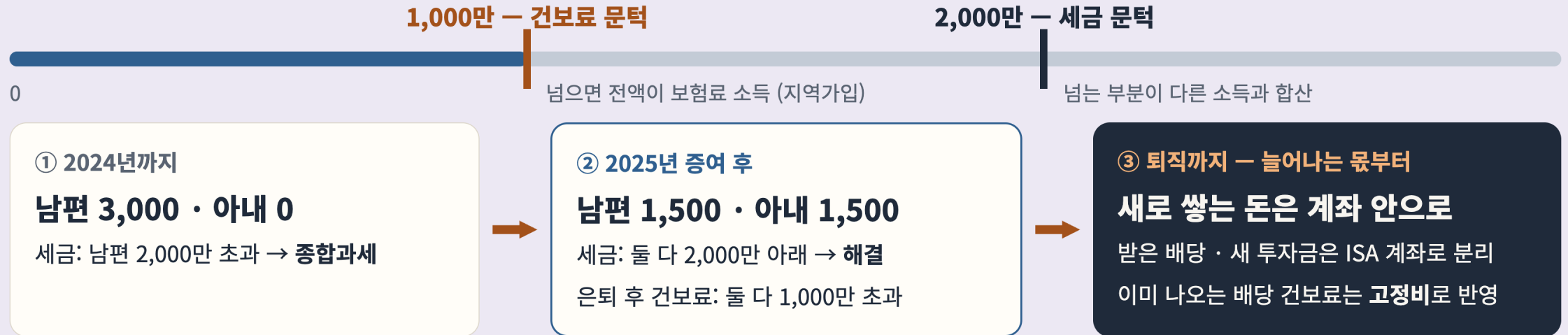
**그대로**

이자·배당이 한 사람 연 1,000만을 넘으면 전액이  
건강보험료 대상 소득

배당 분리과세(국세, 지방세 별도): 2,000만 이하 14% · 2,000만~3억 20% · 요건을 갖춘 기업 배당만 · 고배당 ETF·리츠 제외

명제 4 · 제도 — 문턱 두 개

# 세금 문턱은 2,000만, 건보료 문턱은 1,000만



배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— 건보료는 **매달 내는 생활비로 반영하고**, 늘어나는 몫은 **계좌 안에서 키웁니다**

## 어느 계좌에 담을지, 세 가지 질문 순서로 정합니다

① 언제 쓸 돈인가



② 가입 가능한 계좌인가



③ 담을 수 있는 자산인가

### 사례 ㉠ 고배당주의 배당

- ① 은퇴 후 오래 쓸 돈 (15년 뒤부터)
- ② ISA -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가입 불가
- ③ ISA는 개별 주식도 가능 · 연금저축은 개별 종목 불가 → 담을 수 있는 자산인지 확인

일반계좌의 배당은 건보료 소득 → 계좌 안으로 옮기면 현재 미부과

### 사례 ㉡ 국내상장 해외ETF

- ① 가장 늦게 꺼낼 돈 (10년 이상)
- ②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확인
- ③ 국내상장 해외ETF 가능 · IRP 위험자산 70% 한도 · 해외상장 ETF 불가

일반계좌면 차익도 배당소득 15.4% · 건보료 재료

퀴즈 ② 정답: X — 같은 ETF도 일반계좌에 담으면 건보료 재료, 연금계좌·ISA에 담으면 현재 아닙니다

## 팔라는 게 아니라, 담는 자리를 바꿉니다

### 일반계좌

#### 국내주식은 그대로

차익은 비과세 · 이미 나오는 배당의 건보료는 미리 고정비로 반영

### ISA

#### 늘어나는 몫부터 계좌 안으로

받은 배당 · 새 돈부터 아내 ISA(연 2,000만 · 총 1억) · 계좌 안 배당은 현재 건보료 미부과

### IRP · 해외 몫

#### 시점과 통화를 함께 점검

꺼낼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 · 해외 몫의 환노출 여부는 원화 쓸림과 함께 검토

### 배우자 증여, 두 가지만

- ① 1년 이상 들고 있을 주식을 —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· 배우자 공제 10년 6억
- ② 이체로 끝내지 말고 신고까지 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

현실적인 목표 [예시 가정 · 투자권유 아님]

**배당을 없앨 수는 없다 — 계좌 밖 배당이 더 늘지 않게 막고, 건보료는 내고도 남게**

**또 하나의 그릇:** 세제비적격연금 — 월 150만 이하 · 5년 납입 · 10년 유지  
하면 비과세, 건보료에도 잡히지 않음. 납입 여력이 있는 집의 몫 · 한도는 줄어드는 방향(일시납 2억 → 1억)

# 세금 떼고 건보료 내면 실제 얼마가 남을까요?

→ 건보료가 세금보다 무섭습니다

조세 · 준조세는 제도로 미리 계획합니다

우리 집 점검 — 핸드아웃 점검 4 · 건강보험료

각자의 연간 이자 · 배당 규모를 알고 있다 \_\_\_\_\_만 (연 1,000만 넘으면 건보료 반영)

☐ 예 ☐ 아니오

절세계좌(ISA · 연금저축 · IRP)에 맞는 투자상품을 알고 있다

☐ 예 ☐ 아니오

명제 5 · 쓸림 지도 값아 먹는 요소: 환율·집중

## 월급도, 퇴직금도, 우리사주도, 집도 - 전부 한국 · 원화입니다



### 월급 · 성과금

회사 실적에 따라 함께 오르내림  
한 회사 · 원화



### 퇴직금

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노후 재원  
한 회사 · 원화



### 우리사주 · 배당

자산과 소득이 다시 같은 회사에  
한 회사 · 원화



### 집 · 부동산

예시 가정: 자산의 93% · 금융  
부채  
한 지역 · 원화

한곳에 몰리면

**나쁠 때 함께 흔들립니다**  
**- 조정이 온다면 메울 곳이 없습니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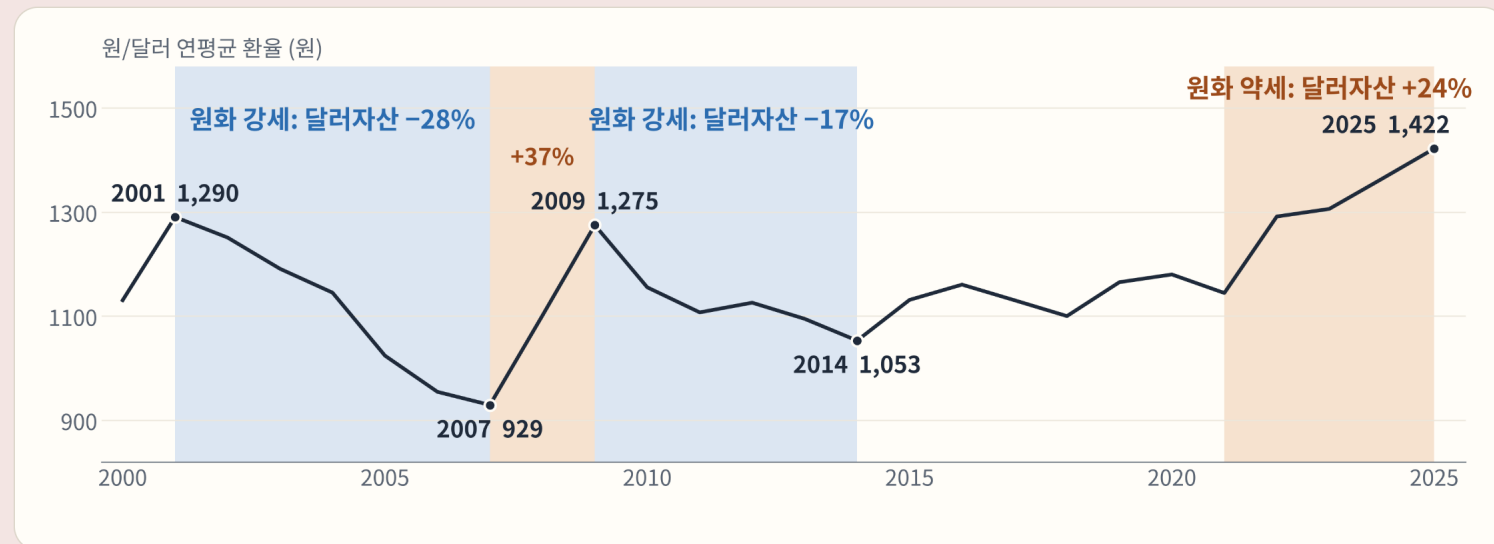
점검 질문 두 가지

- ① **한곳에 몰려 있나**
- ② **곧 쓸 돈이 흔들리는 자산에 있나**

파시라는 게 아니라, 새로 쌓는 돈이 한곳에 더 몰리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

## 명제 5 · 환율의 양면

# 같은 달러라도, 환율에 따라 원화로는 달라집니다



### 같은 미국 주식 1만 달러

2007년(929원)엔 929만 원 · 2025년(1,422원)엔 1,422만 원

### 환율이 오르면 (원화 약세)

내 해외 몫이 늘어남 — 수입 물가가 오를 때 생활비를 받쳐 줌

### 환율이 내리면 (원화 강세)

주가가 그대로여도 줄어듦 — 2001→2007년 -28%

그래서 오래 둘 돈으로만, 전부가 아니라 20~30% — 곧 쓸 돈은 흔들리지 않는 곳에

명제 5 · 예시 가정의 해법 퇴직까지 7년 · 상품이 아니라 순서와 비중

## 멈추고, 줄이고, 가까운 돈과 먼 돈의 통화를 나눕니다

①

### 멈출 것

새 부채 · 상가 추가 매입  
결정 전 확인: 상환액은 은퇴 뒤에도 감당되는가 · 공실이면 · 생활비는

②

### 줄일 순서

금융부채 축소  
부동산 중 매도할 순서부터 정함 · 퇴직 전에

③

### 통화 나누기

가까운 돈  
원화 · 덜 흔들리는 곳  
공백 2년 · 초기 생활비

먼 돈  
일부 해외  
연금계좌 안 · 오래 둘 돈만

### 예시 가정의 시간표

2026~2033 부채 줄이기

2034~35 공백 · 원화

2036~ 국민연금 개시 · 늦게 쓸 연금계좌의 해외 몫은 오래 둘

## 명제 5

# 퇴직 직전에 꼭 줄여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?

→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

한곳에 몰린 돈 · 한 통화에 몰린 돈 · 오래 묶인 돈 · 은퇴 뒤에도 갚을 돈

우리 집 점검 — 핸드아웃 점검 5 · 위험회피

금융자산 중 특정 주식의 비중을 알고 있다 \_\_\_\_\_% (점검용 · 매도 권유 아님)

☐ 예 ☐ 아니오

곧 쓸 돈(5년 안)을 흔들리는 자산에 두지 않았다

☐ 예 ☐ 아니오

비중은 점검용 ·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

## 세 문제 모두 X였습니다

① X 1,500만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입니다

명제 2

② X 같은 ETF라도 담는 계좌가 세금과 건보료를 바꿉니다

명제 4

③ X 공제 안이어도 10년 합산 · 1년 안 매도 시 이월과세 · 신고로 증빙까지

명제 4

처음 그린 은퇴 달력 위에, 오늘의 다섯 명제를 표시해 보십시오

가져갈 한 문장

**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,  
누구 이름으로 · 어느 계좌에서 ·  
언제 · 얼마씩 꺼내느냐로 정해집니다**

누구 명의

어떤 계좌

언제

얼마

+ 한곳에 몰지 않고

1,500만 기준이 유지될 때 · 물가만큼 오를 때 · 더 엄격해질 때 — 세 가지로 우리 집을 점검하십시오